

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했던

D.D.T를 아십니까?

“이”-6.25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인 필자는 “이”에 대한 기억은 과히 리얼리티 하다.

30촉(30w/100v)백열등 아래 신문지를 깔고 참빗으로 머리를 빗어내리면 바닥에 뿔~뿔~ 기어다니는 검은깨 모양 같은 이놈을 발견하게 된다.

서들지 않고 천천히 엄지손톱 등으로 이놈을 째 늘리면.....

“톡” 회열—— 통쾌~~~~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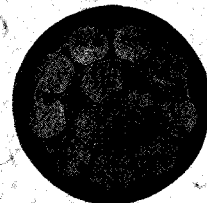
작은 딸애가 머리를 자주 긁는 것을 본 집사람이 깜짝 놀라 날 부르는 것이었다.

여보!! 주연이 머리에 싸가리가 짹악~ 깔렸어요!!

재빨리 내 작업실(고물창고)에서 참빗을 찾기 시작했다.

와! 돌아왔다.

1876년 조선이 개항되고 서양에서 들어왔다 하여 “양약”이라 불리던 약 중 조선인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약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“물건 죽이난 약가로(가루)”였다.



1930년대 살충제 (대, 소), 삽화(등근 모양)

흙으로 된 가옥과 좁은 주거공간, 노출된 통시(화장실)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하수와 상수(우물) 등으로 파리, 모기, 벼룩, 이 등의 해충들은 조선인과 함께 우글거리며 살고 있었다.

그래서 콜레라, 이질, 장티푸스 등이 해를 거르지 않고 유행한 결과 조선초기 670만 정도의 인구가 조선인의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개화기까지 그 인구가 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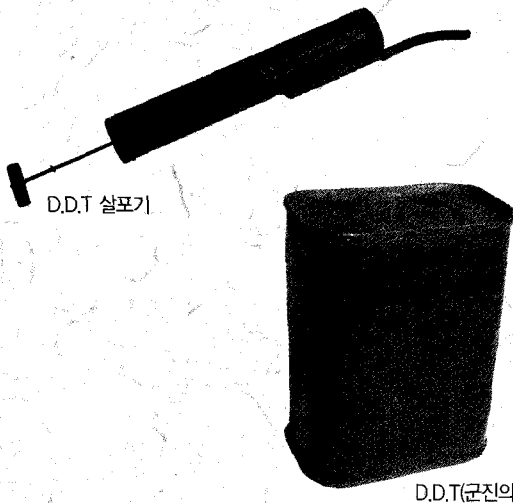
1904년 대한제국기에 국가차원에서 사회보건제도인 “청결법”이 만들어져 “개천을 청소할 것” “노상방뇨 말 것” “물을 끓여 먹을 것” 등의 규칙이 실시되고 이후 내무부(내무부)위생국에서 “오물물 방출금지” 제도를 시행 집집마다 “오물통” 설치를 의무화하고 “위생회사(청결회사)”라는 오물수거 회사를 설립하는 등 과학적인 보건 행정이 실시되었다.

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36년간의 식민 하에 그들의 서구화된 사회보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해방당시 조선인의 평균수명 42.7세가 말해 주듯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는 일본거류민에게 집중되었었다.

1945년 해방과 1950년 6.25전쟁으로 대규모의 미군유입으로 2차대전 중 급속히 발전한 미국의 “군진 의약”이 국내에 들어 왔는데 이 군진 의약 중 대표적인 것이 D.D.T였다.

장구한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, 벼룩 등의 해충은 이 D.D.T의 위력에 꼼짝못했는데...

어린시절 우리는 머리에 흰가루를 덮어써야 했고 또한 겨드랑이에 “D.D.T 주머니”를 달고 다녀야 했다.



D.D.T 살포기

D.D.T(군진의약)



포스터